

##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특징과 의미\*

홍인숙 \*\*

— <차 례> —

1. 서론
2. 유교적 여성주체와 유교 가부장제에서의 여성간 관계 규범
3.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특징
  - 1) 모녀간—이상화된 인격체, 생애 모델로서의 영향력
  - 2) 자매, 고부간—생애 경험의 공유와 연대 관계의 형성
4. 결론—<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의미

### 〈국문초록〉

유교적 지배질서가 강화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와 위상이 부여되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남성을 매개로 했을 때에만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여성들끼리의 관계는 남성 질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될 때에만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규범화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조선 사회에서 드물게 여성 간 관계성을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자료로 <자기록>을 주목하고 모녀간, 자매간, 고부간 관계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작자의 어머니는 외모, 인격, 판단, 성행 등의 모든 면에서 매우 '이상화된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는 작자에게 '생애 모델'이자 인생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어머니를 10세경에 사별하고 몇 달 만에 계모를 맞은 충격과 슬픔은 작자가 삶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친정 언니, 시모와의 관계에는 공통적으로 일생에서 가장 큰 '생애 경험'을 함께 체험한 강한 '연대 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작자와 언니는 어머

\*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니를 잃은 후의 비통함과 애도를 함께 나눌 유일한 혈육이라는 배타적 유대감을 공유했으며 훗날 작자의 남편의 간병을 지지하고 도우며 더 끈끈한 자매애를 구축한 관계였다고 보았다. 작자와 시어머니는 혼인 초기에는 서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관계였으나 작자의 남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시어른들의 지시에 암묵적인 공동 대응을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남편 사후에는 작자가 시모의 자결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남성 중심적인 유교 이념 속에서 속현의 대상일 뿐인 여성의 처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유대 및 의존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보았다.

<자기록>은 조선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입장과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녀, 자매, 고부 간의 관계 및 그 속에서 실현된 모성적 돌봄과 자매애적 유대 관계를 잘 보여준다. 나아가 다른 여성에 대한 기억을 글로 남기는 기록자이자 전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 간 유대와 돌봄과 자매애, 나아가 그것의 기록의 가능성은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가부장제의 상상과 기획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기록>이 갖는 여성문학으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기록, 풍양 조씨, 여성 생애, 모성, 돌봄, 자매애, 기억, 여성 글쓰기

## 1. 서론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여성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와 그 성격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었다.<sup>1)</sup> 특히 조선 후기와 같이 장자와 적통 중심의 가문의식을 중시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

1)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들 간의 관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나는 내가 읽어본 두 여성이 친구로 묘사된 경우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은 남성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만 제시됩니다. …… 남성과의 관계는 여성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말이지요.’,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에 역, 민음사, 2009, 125~126쪽.

화했던 유교적 남성 질서의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열녀, 적모, 서모, 정처, 첩, 서녀’ 등과 같이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사회적 위치와 의미를 부여받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친, 남편, 아들과의 관계를 경유하지 않은, 가문 밖 여성들 간 관계에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거나 긴밀하고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내외법적 공간 구분이 관철되었던 조선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sup>2)</sup> 가문 안에서도 ‘모녀간의 딸과 어머니, 자매간의 언니와 여동생’ 과 같이 여성들끼리의 관계라든가, 그 관계에서의 역할, 정체성은 유교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 사회적으로 의미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영역이자 부정적이거나 상호 적대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던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들 간의 관계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로 〈자기록〉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자기 생애 글쓰기로서의 의미, 조선후기 열녀 관습과의 관련성, 시댁 어른들을 비롯한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의문의 시선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텍스트에서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여성 작가의 자전적 생애 기록에서도

2) 조선후기 금원을 중심으로 했던 삼호정시사가 연구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여성이 가문의 경계 밖에서 ‘우정’의 주체로 서로의 삶에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특별한 예외성 때문이었다. 김경미, 「외씨버선발로 금강산을 밟은 남장 처녀 김금원」,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박영민, 「19세기 여성 詩會와 문학 공간- 운초 그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6, 민족문화연구원, 2007. 6 ; 김경미, 「〈호동서락기〉 이본 『금원집(錦園集)』 연구- 김금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고전연구』 4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2. ; 남원 윤씨의 유서는 자신의 몸종인 점열 모녀에 대해 깊은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한 신의와 우의의 감정을 보여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윤씨 유서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에 대해서는 홍인숙, 「남원 윤씨 열행 기록 『애종용(哀從容)』 연구 - 여성 중심 관계성과 유서 언어의 번역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8을 참고.

흔히 읽어보기 어려운, 여성들 간의 관계의 구체적인 실상이 <자기록> 텍스트 전체에 걸쳐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18세기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인 풍양 조씨(1772~1815)의 생애 기록 <자기록><sup>4)</sup>은 텍스트의 전면에서는 남편과 친정 부친이라는 남성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 중 여성 구성원끼리의 관계, 즉 ‘모녀, 자매, 고부 관계’에 대해 작자 스스로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텍스트이다. 본고는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이 ‘남성 가부장 질서가 상정한 여성간 관계성의 성격’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여성 생애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성들 간의 유대감과 상호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적 남성 질서가 상정한 관계 규정과 감정 기획<sup>5)</sup>의 일탈선상에 여성 간 관계성이

3) <자기록>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박옥주,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 서사 - 『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2001.;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홍인숙, 『『즈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박경, 『『자기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2014.;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조수미,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김정경,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4) 『자기록』의 번역과 원문은 모두 다음 책을 참고로 하였다. 풍양 조씨,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 김경미 역, 나의시간, 2014.

5) 감정 연구는 감정이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 시대적 산물이며 한 사회의 주체 구성의

있음을 지적하고 〈자기록〉을 통한 전통적인 여성간 관계 표상의 재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바탕에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입장의 공유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그러한 경험과 입장의 공유를 통해 생애 전체에 걸쳐 이들의 관계성이 상호적이고 복합적인 영향력과 생애 규정력을 행사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유교적 여성주체와 유교 가부장제에서의 여성간 관계 규범

이 장에서는 유교 가부장제가 이상적으로 규정한 여성 주체와 여성간 관계 규범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교에서의 여성 주체 및 관계 표상과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관계 서술 사이의 거리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규정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 여성들의 관계성에 대한 평가가 젠더화된 것이었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중요한 매개라고 본다. ‘감정 기획’이라는 개념 역시 한 사회가 그 안에서의 질서와 도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규범과 규율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배구조의 재생산과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감정 연구의 관점을 함축한다. ‘감정은 지배담론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정서적 매개인 동시에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유동적 에너지이자 상호주관적 과정이다.’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 2015. 13쪽; ‘감정들은 위계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렇게 조직된 감정의 위계는 암묵적인 방식으로 도덕적, 사회적 배치를 조직하고 있다.’, 예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15쪽; ‘감정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관리되는 것만이 아니다. 관리되고 변화된 감정도 다시 행위의 원천이 되고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는다.’,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31면; ‘여성의 감정은 가부장적 가치의 수행 여부에 따라 공감되거나 배제되었다. …… 규범화·계급화된 표상으로서의 감정은 적극적으로 공감되고 규범적 가치에 반하는 감정은 배제되거나 타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혜중, 『살인사건을 둘러싼 조선의 감성 정치』, 『감성사회- 감성은 어떻게 문화동력이 되었나』, 최기숙, 소영현 외, 글항아리, 2014, 130쪽, 133쪽.

〈자기록〉의 여성 간 관계성 서술이 자료적 회소성과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선 사회를 대표하는 유교적 여성 주체는 열 윤리의 이념적 상징으로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열녀’<sup>6)</sup>였다. 그러나 ‘여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조선 사회의 모범적인 여성 주체<sup>7)</sup>의 기획은 다음과 같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 ① 열녀전(烈女傳)에 말하기를, “옛부터 부인은 아이를 가지면 잠잘 때 몸을 기울게 하지 않으며 앉을 때 한쪽이 치우치게 하지 않으며 설 때 한쪽 발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맛이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벤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앉은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눈으로는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밤에는 소경에게 시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이야기하게 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면 형용이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한다.<sup>8)</sup>
- ② 계집아이는 열 살이 되면 규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 보모가 유순한 말씨와 태도, 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르친다.<sup>9)</sup>

6) 김경미, 『가(家)와 여성』, 3장 『유교적 여성 주체와 균열』, 여이연, 2012. 171~272쪽. 이 책에서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여성상인 ‘열녀’를 유교 가부장제의 기획에 의해 구성된 ‘유교적 여성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7) ‘주체’는 지배질서, 권력에 종속되고 예속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예속화(subjection)란 주체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권력에 의해 종속(subordination)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론들』, 강경덕, 김세서리아 역, 그린비, 2019.

8) 烈女傳曰, 古者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蹀, 不食邪味, 割不正不食, 席不正不坐,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警誦詩, 道正事, 如此則生子, 形容端正, 才過人矣. 『소학』, 『내편(內篇)』, ‘입교(立教)’ 1장, 이기석 역해, 홍신문화사, 1982. 14~16쪽.

9) 女子十年不出, 姆教婉婉聽從, 執麻泉治絲, 織紵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소학』, 『내편(內篇)』, ‘입교(立教)’ 2장, 이기석 역해, 홍신문화사, 1982. 20~21쪽.

③ 공자가 말하기를, “부인이란 남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자기 뜻대로 하는 의리가 없고 삼종(三從)의 도리가 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여 감히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sup>10)</sup>”

예문 ①과 ②는 조선후기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방식을 촘촘히 규제하는 수신서였던 『소학』을 여는 첫 대목인 1장과 2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열녀전〉을 인용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①은 유교 질서가 규정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곧 모의(母儀), 모범적인 어머니에 있음을 보여주며, ②는 여성 덕목의 제일 기준이 바로 ‘안에 거하며 남을 따르는 일(從)’, 순종하는 태도에 있음을 나타내준다. ③은 『소학』 「내편」 67장으로 공자의 말을 빌려 ‘삼종’, 즉 여성이 ‘순종(從)’의 규범을 지켜야 하는 관계를 ‘부친, 남편, 아들’과의 세 개의 관계로 제시하고, 유교적 여성 주체의 최종심급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는 ‘전제지의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위와 같이 『소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적 어머니의 모습, 유순하게 따르는 모습, 전제지의를 갖지 않는 모습’은 유교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바람직한 사회적 존재로 규율하고 호명하는 방식, 즉 유교적 여성 주체를 규정하는 규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교적 여성 주체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로 지목된 관계가 바로 ‘부친, 남편, 아들’, 즉 남성들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회의 지배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정 여성 주체를 생산하는 체계가, 대남성 관계 중심으로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성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10) 孔子曰，婦人伏於人也，是故無專制之義，有三從之道，在家從父，適人從夫，夫死從子，無所敢自遂也。教令不出閨門，事在饋食之間而已矣。『소학』, 「내편(內篇)」, 『명륜(明倫)』 67장, 이기석 역해, 흥신문화사, 1982. 92~93쪽.

사회적인 의미나 위상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여성들의 관계 중에서도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된 경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남성 문인이 지은 수신서, 혹은 사대부가에서 남성 가부장이 가문의 여성들에게 지어주었던 가문 단위의 여성 교훈서들을 보면 반면교사의 사례들로 부정적인 여성들 간의 관계가 서술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정과 훈육이 남성 중심적 가문 질서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획득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때 남성들의 눈에 포착된 ‘여성들끼리의 전형적인 관계’는 경쟁적이며 상호 적대적인 성격을 가진 ‘고부, 동서, 처첩’ 사이의 관계였다.

- ④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姓)이 다른 사람이 의리로 합쳐졌을 뿐 준비도 같지 않고 노소에도 다름이 있다. 더구나 그들 중 흔히 편협한 성품을 가져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비일비재함이라. ……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가난하다고 미워하여 그의 봉양을 좋아하지 않고 가혹하게 꾸짖으며 조금도 사랑하거나 아껴주지 않는다. 심지어 그 며느리로 하여금 근심으로 말라죽게 하거나 혹은 칼과 독약으로 자살하게 만드는 자까지 있는데 이는 인륜의 큰 변이다.<sup>11)</sup>
- ⑤ 동서들이 빈부가 비록 같지 않더라도 부러워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서로 화목하여 틈이 생기지 않게 지내는 것이 옳다. 동서의 방에 몰래 가서 엿들어서는 안 되고, 또 간사한 하녀를 시켜 그들의 과실을 살피게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여우같은 행동이다. 집안에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이 없어야만 집안 도리가 바로 세워진다.<sup>12)</sup>

11) 姑與婦，皆是異姓之人，以義而合，尊卑之不同而老小之有異，矧又類多偏狹之性，其不相容者，在在相望。…… 姑嫌婦貧，不善奉養，督責苛刻，無少慈憐，至使其婦戚戚枯死，或有刀藥自裁者，此人倫之大變也。 이덕무, 『婦儀』, ‘人倫’, 『士小節』, 『靑莊館全書』 30권, 한국고전종합 DB.

12) 妯娌貧富，雖不同，不可羨慕而陵侮。與之共而無間言可矣。妯娌婦媼之房，不可潛踪伺聽，亦不可使奸黠之婢，偵察過失。此狐蜚之倫，家中無附耳細語，然後家

- ⑥ 남편이 첩을 두었는데 …… 다만 자신의 성품이 편협하여 독기를 부림으로써 결국 부부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해치는 일을 못할 것 없이 하기까지 하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정실과 첩의 사이, 동서 사이는 능히 우애하는 자가 적고, 남의 아내가 되어 능히 남편의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많지 않다.<sup>13)</sup>
- ⑦ 부인의 성품은 또한 편협하고 막힌 이가 많아 시부모에게 끝없는 은혜가 있음을 모르고 …… 세간의 고부지간을 보면 부모의 인자한 마음과 자식의 효성스런 마음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며느리 된 자가 시부모의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sup>14)</sup>
- ⑧ 형제들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다가 나중에 의가 상하는 것은 모두 맞이한 부인이 들어와 다른 성(姓)이 모여 사는 데 연유한다. 동서지간에는 정이 별로 없고 힘에 쫓긴다. 정이 소원한 까닭에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힘에 쫓기는 까닭에 오로지 서로 이기려고만 애쓴다. …… 이런 까닭에 길고 짧음을 다투며 착한 사람을 해치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니 근거 없는 말이 일어나고 참소와 비방이 은밀함을 좇아 나타나 마침내 미워하는 틈이 생긴다.<sup>15)</sup>
- ⑨ 양 하나에 음이 둘인 것은 천도에 항상 그러한 것이요, 여러 여자가 한 지아버를 섬김은 인사에 당연한 일이다. ……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이다. …… 첩이 처에게 대항함은 그 죄가 진실로 크지만 처가 첩을 투기

道乃正. 이덕무, 『婦儀』, ‘人倫’, 『士小節』, 『靑莊館全書』 30권, 한국고전종합 DB.

13) 夫主之置側室 …… 只緣性狹, 肆其毒, 至使夫妻反目, 甚至詛呪戕害, 無所不至, 可不悲哉. 嫡妾之間, 娣姒之際, 能保恩義者鮮矣. 爲人妻而能愛夫之姊妹者, 世罕有之. 이덕무, 『婦儀』, ‘性行’, 『士小節』, 『靑莊館全書』 30권, 한국고전종합 DB.

14) 婦人之性, 又多偏性, 故於舅姑, 全不知有罔極之恩. …… 且觀世人姑婦之間, 多失其慈孝之心, 此皆爲婦者, 不識舅姑慈愛之心故也. 한원진, 『韓氏婦訓』, ‘事父母舅姑章第二’, 『南塘集』, 이경하 편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27~28쪽.

15) 人家兄弟, 其初無不想愛, 其終多有不義者, 皆緣娶婦入門, 異姓相聚. 而娣姒之間, 情踈勢逼, 情踈故不想愛, 勢逼故專務相勝. …… 是以爭長競短, 仗善侮弱, 造言飛語胥興, 讒謗從微至著, 遂成嫌隙. 한원진, 『韓氏婦訓』, ‘接兄弟娣姒章第四’, 『南塘集』, 이경하 편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32~33쪽.

하는 것도 어찌 선한 일이겠는가.<sup>16)</sup>

④~⑥은 이덕무의 수신서인 『사소절』 「부의(婦儀)」편이다. 먼저 ④에서는 고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성(姓)을 가졌으며 또 여성은 ‘편협한 성품(偏狹之性)<sup>17)</sup>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⑤에서는 동서들이란 원래 불화하고 경쟁하며 이간질하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동서 간에 서로 처지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틈이 생기거나 반목하거나 이간질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⑥에서는 처첩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가 ‘편협한 성품’으로 인해 남편과 첩과의 관계에서 ‘성내고 독을 품으며’, ‘저주하고 해치면서 못할 것이 없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탄식하고 있다. 특히 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처첩과 동서와 시누울케 사이’에는 ‘우애하는 자가 드물다’고 하면서 ‘남의 처가 되어 남편의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많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기도 하다.

⑦~⑨는 한원진이 지은 가문 내 규훈서 「한씨부훈」 중에서 각각 여성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가 ‘부모의 인자함도 자식의 효성도 없음’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⑦에서는 그 이유를 위 ④에서처럼 ‘여성의 편협한 성품’ 때문이며 며느리가 ‘시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⑧에서는 동서간의 관계를 ‘불화하기 쉽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역시 ④와 동일하

16) 沉陽一而陰二，天道之常然者也。衆女而事一夫，人事之當然者也。……夫以婦人之伏於人者……妾而抗敵，其罪故大，而嫡而妬妾，亦豈爲善。한원진, 『韓氏婦訓』, 『待妾臚章第六』, 『南塘集』, 이경하 편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38쪽.

17) 다음 연구는 여성들의 성품을 ‘편협한 것’으로 자연화하는 서술이 조선후기 여성 교훈서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임을 분석하고 있다. ‘사대부 여훈서는 주로 여성이 선천적으로 편협하다는 말로 여성의 열등함을 선언한다.’ 성민경, 『여훈서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6쪽.

게 ‘다른 성들이 서로 모였기(異姓相聚)’ 때문이며, 그 때문에 ‘길고 짧음을 다두고’, ‘착한 이를 해치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며’, ‘참소와 비방’을 일삼게 된다고 하였다. ⑨에서는 음양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첩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처첩간의 관계를 서로 ‘적에게 대항하는(抗敵)’ 것으로 설명하며 투기하는 여성은 ‘남에게 따라야 하는 자(伏於人者)’라는 유교적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단정한다.

이덕무와 한원진의 위 인용문은 조선 사회라는 가부장 질서가 여성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성들의 불화와 적대의 원인이 ‘여성 자신의 편협한 성품’과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성(姓)’을 가진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뿐, 그 관계 자체에 내장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시대이라는 불편한 공간에서 마주치게 된 고부 간, 동서 간, 시누우케와 같은 여성들의 관계가 억압성과 일방성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질적인 공간에 이식된 존재로서 여성들이 대체로 위축되고 고립되고 방어적인 감정을 느꼈으리라는 점, 처첩 간의 관계는 그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관계일 뿐 어느 편의 여성에게든 폭력적이고 위기감을 느낄 상황이라는 점 등과 같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다.

여성의 ‘열등하고 편협한 성질(偏性)’과 ‘출신의 다름(異姓)’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설명은 시집이라는 위계적 공간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들의 불편한 관계의 여러 원인을 배제하고, 관계의 거리감과 불편함을 오직 여성들의 편협하고 웅졸한 성격 탓인 것으로 책임 전가하며, 불화와 갈등을 여성 간 관계의 근본적 속성으로 치부하도록 하는 태도이다. 여성들끼리의 관계는 늘 서로 견제하고 불화하며 험뜯고 시기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시선을 고착화하는 것이 바로 ‘유교 가부장제의 감정 기획’ 중 하나였던 셈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눈에 포착된 여성 간 관계가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것, 질시하거나 배척하는 것, 서로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관계로 규정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대부 남성들의 눈에 ‘시집에서의 여성 존재’라는 억압적 위치성이나 고립성, 폭력성의 측면이 보이지도 인식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만 여성들의 관계가 가문 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긴장이나 소요를 해소하는 것만이 의미있는 과제였다.

여성들의 부정적인 관계가 먼저 남성 사대부들의 눈에 포착되고 우선적인 사회적 가시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 역시, 이들의 불편하고 갈등적인 관계가 가문이나 남성들의 관계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즉 여성들 간의 불화가 남성 질서와 가부장제에 미칠 수 있는 손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에 긴장을 유발시키지 않는 ‘모녀, 자매’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회화된 규범이나 제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살펴볼 수 있다. 여성들의 관계성은 그것을 사회적 가시화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남성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되고 규정되는 것이었던 셈이다.

### 3.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특징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유교적 남성 질서가 상정하고 있는 여성 간 관계성은 불화와 반목, 갈등과 경쟁을 본질적 속성으로 규정하는 젠더화된 관점에서의 평가이며 가부장제의 입장이 반영된 편향적 관계 규정이자 감정 기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자기록>은 여성 자신이 서술하는 여성 간 관계의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생애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자기록>에는 남성 지배질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비사회화의 영역인 ‘모녀’ 간, ‘자매’ 간의 관계성, 그들과의 사이에서 주고 받은 딸로서, 동생으로서의 감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

성 질서가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사회적 가치화의 영역으로 끌어낸 문제적이고 갈등적인 여성 간 관계인 ‘고부’ 간의 실제에 대한 떠느리인 여성 입장에서 경험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모녀’, ‘자매’, ‘고부’ 간을 중심으로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작자인 풍양 조씨가 딸의 입장에서 기억하는 자신의 ‘모친’에 대한 형상화를 ‘이상적인 인격체’로서의 기준이라는 관점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매’와 ‘고부’ 사이의 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생애 경험의 공유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모녀간—이상화된 인격체, 생애 모델로서의 영향력

〈자기록〉에 나타난 모녀간 관계에 대한 서술은 작자가 10살 때 돌아가신 모친의 기억을 이 작품을 쓸 당시인 20세 초반에 다시 떠올리며 기록한 것이다. 10살 소녀에게 남겨진 모친의 모습은 인격과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외모와 성품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격체로 기억되고 있다.

먼저 작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여성교훈서에 나올 법한 유교적 여성 주체로서의 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한다. 작자의 어머니는 혼자 된 시모를 효성스럽고 극진히 봉양하는 효부로, 부친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읽어내 지기(知己)로 인정받는 현처로, 또 많은 지친들과 동서, 시누이 사이에서도 늘 먼저 후하게 대접하여 화목한 관계를 이끄는 인물이다.<sup>18)</sup> 이러한 ‘떠느리, 아내’로서의 규범적 역할 형상화에

18) 각각의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할머니가 조금만 편찮으셔도 마음을 졸이고 위로하며 ……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청사를 떠나지 않고 한여름에도 손수 불피우기를 그치지 않고 마음을 졸이며 때를 어기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 혹 드신 것이 적으면 크게 걱정하며 직접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어 올렸다.’ 김정미(2014), 앞의 책,

이어, 작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질들을 고르게 갖춘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구체적인 말과 일화들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⑩ 우리 어머니는 …… 태도가 의젓하고 차분하며 얼굴이 수려하고 피부는 흰 눈이 영긴 듯하였다. 본래 일찍부터 쇠약해져 춘추 삼십여 세에 눈썹 사이에 듬성듬성 흰 빛이 비치고 기력이 심히 약해졌으나 피부는 맑고 고와 씻은 듯 깨끗하였다.<sup>19)</sup>

⑪ 도량이 넓어 모든 일을 꾸러기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며 베푸는 데 여유로워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었다. 타고난 성품이 바르고 너그러우며 활달하고 인자하며 부드럽고 유쾌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으셨다. …… 치우치는 법이 없어 한쪽에만 치우쳐 호의를 보이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명정대하여 일말의 구차함이 없었으니 …… 또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 의지하는 바는 한편으로 치우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음이니 너희는 삼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sup>20)</sup>

⑫ 여러 해 전에 계동에 사는 판서 오촌님이 우리 외할아버지께 서운한 일을 해서 어머니가 몹시 유감스러워 하며 불만스러워 했다. 그뒤 계동 오촌님이 귀양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외가 근처였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부모님을 뵈러 가 계셨는데 이는 바로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난다는 격이라 과거의 감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주 하인을 보내 문안을 여쭙었다.

20쪽. ;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김은 화평하고 곡진하며 반드시 후한 말씀과 덕 되는 일로 도움이 되고자 했다. 아버지도 탄복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귀히 대하셨으니 서로 지극히 가깝고 화목하였다. …… 밖으로는 부부의 의를 갖추고 안으로는 서로 마음이 통하여 알아주는 지기(知己)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헤아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의견을 내면 마땅히 어기지 않으셔’ 김경미, 앞 책 21쪽. ; ‘동서와 시누이,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고 친지 간에 돈독하고 화목한 것은 평생 근본으로 …… 동기간에 반드시 음식과 의복을 나누고 촌수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후한 정을 고루고루 폈다.’ 김경미(2014), 앞의 책, 21쪽.

19) 김경미(2014), 앞의 책, 19쪽.

20) 김경미(2014), 앞의 책, 23쪽.

…… 자주 글월로 안부를 묻고 제철 과일과 반찬으로 정을 표하고 끈진히 정성을 다하자 비로소 종숙부가 옛일을 후회하며 감격하여 새로이 후한 말과 도타운 정으로 친애함이 지극해졌다. 박한 곳에 후하게 갚아서 친해졌으니 이 한 가지 일로 미루어보아도 우리 어머니의 너그럽고 후한 성덕을 알 만하다.<sup>21)</sup>

⑬ 어머니는 조용하고 엄하면서도 온화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고, 풍부하게 갖추되 넉넉함과 간소함을 경우에 맞게 하였다. 온갖 일을 총명하게 환히 알고 있어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 “중이 비록 귀천이 다르지만 또한 사람이요 지각이 있다. 위에서 어른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꾸짖는 것은 어른을 앞서는 것이요 어진 마음이 적은 것이다. 비록 어른이 꾸짖고 벌해도 화를 풀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옳으니까.” …… “나이 또 사십이니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으려 하오.” 하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답하였다. “어찌 이런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형세를 들자면 위로 어머니가 계시나 음식을 받들 사람이 없고, 당신은 나이 마흔에 뒤를 의탁할 아들이 없고, 혼인하지 않은 두 딸이 있고, 시중들고 음식을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급히 장가를 드셔야 할 터인데 어찌 이같이 그릇되게 헤아리시는 겁니까?”<sup>22)</sup>

⑭ 어머니가 비록 적막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나 번거롭고 힘든 가사에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빈번하고 식구가 많은 까닭에 윗사람이면서도 때를 어긴 뒤 가장 늦게 드셨고 상 위의 반찬을 종들에게 마저 사양하고 밥도 매양 윗부분을 덜고 조금 드실 따름이었다.<sup>23)</sup>

작자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외모가 뛰어나고 성품은 너그럽고 진중하며 판단력이 있는 총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⑩에서 작자는 어머니의 외모를 ‘수려한 용안과 흰 피부’로 제시한다. 몸이 일찍 쇠약해져 머리에

21) 김경미(2014), 앞의 책, 22쪽.

22) 김경미(2014), 앞의 책, 24~25쪽.

23) 김경미(2014), 앞의 책, 39쪽.

흰 빛이 섞였었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맑고 곱고 깨끗했다’고 묘사하여 모친이 외양에서부터 기품 있고 여성적인 용모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드러낸다.

⑪과 ⑫는 어머니의 성품이 ‘관대하고 엄숙하며 공명정대한’ 성격이었음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먼저 ⑪에서는 너그러운 성품이 ‘도량이 넓음’, ‘베푸는 데 여유로움’, ‘바르고 활달하고 인자함’,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음’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그 공명정대한 성품 역시 ‘치우치지 않음’, ‘일말의 구차함이 없음’ 등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말을 빌려 ‘나는 평생 편사(偏私)한 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일편(一偏)되고 협(狹)히 니를 좋아해본 적이 없다’고 슬회하는 내용을 전하기도 한다. ⑬은 어머니가 외조부에게 섭섭한 일을 한 친지인 ‘계동 오촌 판사’님이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 묵은 감정을 들추지 않고 후하게 보살펴드렸다는 일화이다. 이러한 관대하고 군자다운 모습은 여성 교훈서에 묘사된 여성적 성품인 ‘편협함’, 편성(偏性)과는 정반대의 것이며 유교 가부장제의 감정적 젠더 설정을 전복하는 우월성의 자질을 모친에게 부여하는 대목이다.

⑬은 어머니의 사려 깊음과 판단력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종을 부릴 때의 훈계를 담은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다. 작자는 모친이 ‘종도 사람이니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작자 자매가 연소한 상전의 입장에서 종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장유유서에도 어긋나고 인자한 마음도 부족한 처사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음을 전한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후 재취할 것을 적극 권하는 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일화들은 작자의 어머니가 사리가 밝고 판단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투기하지 않음’이라는 사회적 규범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주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⑭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언니와 작자가 떠올린 어머니의 추억이다. 어

머니가 생전에 많은 식구들 덕분에 ‘제일 늦게 때를 어긴 뒤에야’ 겨우 식사를 했고 그나마도 배고픈 하인들과 아랫사람을 생각해 늘 반찬을 양보하여 남겼으며 밥도 ‘늘 윗부분만 조금 덜어서 먹을 뿐’이었다는 일화는 이 인물의 희생적이고 배려적이며 고결한 이미지를 완성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문 안팎의 사람들을 두루 지휘해야 하는 총부로서 어머니가 항상 시모와 남편, 자녀들과 종들까지 생각하는 사려 깊은 성품과 자기희생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자가 제시하고 있는 어머니는 ‘엄격하지만 따뜻하고, 법도가 있고 인격적이며 기품 있는 여성’, ‘수려한 외모에서부터 넓은 도량과 공명정대한 성품, 판단력과 지혜로움과 어질고 자애로운 성품’까지 갖춘 이상화된 인물이다. 이러한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어머니의 형상화는 보통 사대부 남성들이 자신의 모친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 제문, 비지문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자기록〉의 작자가 남긴 딸 입장에서 어머니 형상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어머니의 존재가 평생에 걸쳐 따르고 싶은 역할모델이자, 다른 관계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실질적인 생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맺었던 지심지기의 부부관계를 대를 이어 반복하는 것처럼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라는 표현으로 드러내어 부부 관계의 생애적 모델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sup>25)</sup>, 자신의 언니나 시어머니

24)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 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 김만중의 〈先妣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상층 남성의 어머니 행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어머니 형상화가 주로 자식 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한다는 점, 여성의 사적인 감정이나 희생, 고통은 은폐되고 세계와의 갈등 없이 가문의 질서 구현에 충실히 복무하는 여성상으로 그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 ‘내가 아는 바를 숨기지 않고 잘못된 도를 일깨워 서로의 의견을 좇았다. 시어머니가

와 같이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도 어머니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 그러하다.<sup>26)</sup>

또한 작자의 모친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두지 못하고 산후 병고에 시달리다 일찍 죽음을 맞았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생애는 작자에게 운명의 가혹함과 삶의 부조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모친의 사후 자신이 자주 답답하고 우울하며 슬픈 심사를 느끼곤 했다고 술회하기도 하고, 신혼 초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의 말을 빌어 자신이 ‘어머니 잃은 슬픔을 너무 잊지 못하고 온화한 빛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곤 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결국 작자에게 어머니의 갑작스럽고 이른 죽음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관적인 것으로 변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준다.<sup>27)</sup>

---

매양 놀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기(知己)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알아줌이 어찌 저리 유명할거나.”, 김경미, 51면 ; ‘한 집에 있는 날이 오래되고 달포 되니 서로 낮이 익고 마음이 가까워져서 경술년부터 나도 비로소 부끄러움이 줄고 남편도 어색해하지 않아서 서로 어울려 말을 주고받으면 긴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의논이 마음에 맞으니’, 김경미(2014), 앞의 책, 122쪽.

26) 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그대로 따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시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반대로 감정적 기복이 심했다는 시선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언니는 타고난 성품이 탁월하게 빼어나니 …… 인품으로 툭 트이고 어질고 자애로우며 순박하고 신중했다. 모든 일을 꿰뚫어 통달하며 일을 행하는 데 한 점 구차함을 두지 않으며 진정 인품으로 고상하고 성실한 것이 진실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품모이니 더욱 슬픔을 느끼지 않으리요.’, 김경미, 앞의 책, 39면. ; ‘아침저녁으로 슬피 울며 몹시 애통해하고 좋아하며 즐기시는 것을 뵈지 못하니 …… 어머니가 때때로 슬퍼하고 우울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면 남편이 부드러운 낮빛과 기분좋은 소리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여 온갖 응석과 갖가지 유희로 눈물 흘리는 가운데 웃게 하였다. …… 시어머니도 우울한 마음으로 함께 장난하기를 저같이 하며 계속 응해주시다가’, 김경미(2014), 앞의 책, 47쪽.

27) 작자가 스스로 우울하고 비감한 마음에 자주 빠지곤 했다고 술회하는 내용, 남편이 작자에게 던진 평소 웃음이 부족하고 슬픔이 많다고 지적하는 내용 등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작자가 갖게 된 비관적인 세계관에 대한 언급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 2) 자매, 고부간—생애 경험의 공유와 연대 관계의 형성

돌아가신 어머니가 추모와 애도, 그리움과 이상화의 대상이자 생애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다면 〈자기록〉의 작자 풍양 조씨에게 언니와 시어머니는 삶에서 크고 중요한 생애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한 인물, 끈끈한 연대감을 나눈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언니는 작자와 함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함께 했던 유일한 형제이며, 훗날 작자의 남편이 발병한 이후 병 간호를 보조하고 뒷바라지 해준 인물이다. 시모는 작자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병자 간호를 함께 했던 인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10세 된 딸을 잃은 일로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작자에게 자신의 모친과의 동일시를 불러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즉 언니와 작자는 모친 상실과 병자 간호의 생애 경험을, 시모와 작자는 자녀 사망과 병자 간호라는 생애 경험을 공통의 고리로 하여 연결되는 관계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작자와 이들이 맺은 생애 경험의 공유자로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생애 경험의 이면에 공통적으로 가부장제 하의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체험의 성격이 깔려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⑮ 세상에 누군들 동기가 없고 혈육의 정이 없으리오마는 실로 우리 형제는 남다른 정이 있었다.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 언니는 16살, 나는 11살로 나는 언니를 의지하고 언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여 배개와 이불을 같이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앉으면 무릎을 나란히 하고 움직이면 그림

---

‘나 또한 품고 있는 지극한 슬픔으로 본래 심사가 슬프고 괴로웠으나 시택에 돌아오면 다만 시어른들의 시중을 들 따름이었다. 내 방으로 물러나오면 …… 우울함이 심할 뿐이었다.’, 김경미, 앞의 책, 46면. ; ‘내가 본래 지극한 아픔을 품어 심사가 슬픈 까닭에 세월이 오래되었어도 절기마다 물색이 아름다울 때면 더욱 심란하고 쓸쓸했다. …… “그대 마음이 어머니 잃고 너무 슬퍼함이 적어 안타깝소. 그대를 자세히 보니 자고 먹고 말하고 웃는 사이에 다 깊은 한숨이고 항상 얼굴에서 온화한 빛을 보지 못하겠소. 늘 수척해서 얼굴에 화기를 잃고 마음 쓸쓸해 하니 …… 나는 온화하고 유쾌한 이를 취하니 이후로는 고치기 바라오.”’, 김경미(2014), 앞의 책, 54쪽.

자가 합하는 것처럼 함께 하니 내가 잠깐 없으면 언니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언니가 잠깐 떠나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 밤낮으로 앉고 눕고 하는 것이 한몸 같았다. 음식을 먹으면 상을 하나로 하고 한 그릇에 숟가락 둘을 꽂아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능히 먹지 못하며 …… 지극한 슬픔이 이미 가슴 속에 병이 되어 한 덩이 기운이 몽쳐서 잠깐 마음을 쓰면 음식을 내리지 못하고, 언니는 더욱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것이 목은 병이 되어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 밤이 되면 우리끼리 이불 속에서 살을 대고 몸을 의지하였으니 어머니 품을 생각하면 그립고 슬픔이 간절하여 다만 눈물이 베개를 적실 따름이었다. …… 언니가 나를 사랑함이 더욱 두터우니 나는 다만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우러러 …… 상의하였으니 아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 같아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일각이 여삼추같았다.<sup>28)</sup>

작자는 11살 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한다. 그때 작자 언니의 나이가 16세였으니 어머니의 죽음은 두 자매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맞이한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비극적 상황 앞에서 두 자매는 위 ⑮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개와 이불을 같이 하고’ ‘한 그릇에 숟가락 둘을 꽂아’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함께 하고 ‘무릎을 나란히 하고 그림자가 합하는 것처럼’ 일동일정을 함께 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한 덩이 기운이 몽쳐 잠깐 마음을 쓰면 음식을 내리지 못하고’, 그의 언니는 아예 ‘그것이 병이 되어 목은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될 정도로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들의 비통함과 슬픔에는 어머니의 죽음 이유와 그 직후 집안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일정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어머니의 죽음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쇠약한 상

28) 김경미(2014), 앞의 책, 37~40쪽.

태에서 무리한 임신과 출산을 시도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자의 부친은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도 여섯 달 만에 새로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 역시 계후를 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sup>29)</sup> 어머니의 병과 죽음을 재촉한 이유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 모친과 각별한 부부애를 나눈 부친이 하루아침에 새 모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작자에게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는 일이었다. 작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훗날 남편과의 대화나 시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문득 ‘남성의 재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sup>30)</sup> 작자와 언니가 나눈 깊은 유대감의 기저에는, 가부장 질서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윤리 중 삼종(三從)의 하나인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었던 어머니의 생애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언니가 있는 곳과는 한 집에 각각 처소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간호에도 여러 가지 시중을 혼자서 들기는 어려웠다. 언니에게 협실에서 함께 지내기를 청하자 언니가 …… 스스로 옮겨와 함께 지내게 되어 근심 중에도 천만다행이었다. …… 나는 점괘에 따라 목욕재계하고 칠일 밤을 빌었

29) 어머니 일주기가 안 되어 새장가 들 일이 급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몹시 연로하시고 주부의 자리가 비어 마지못하여 널리 혼처를 구하니 선달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 …… 해는 바뀌지 않았는데 다만 어머니 자리가 바뀌고 사람 일이 변하여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취가 영영 끊어지고 멀어졌으니 아 슬프다! 김경미(2014), 앞의 책, 37쪽.

30) 그대가 비록 곡진하나 아내가 남편을 받들어 중히 여김 같으리까. 세상에 무심한 것이 사내라 아내가 살아서는 사랑함이 한가지나 불행히 상치한 뒤에는 새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버려 옛 사람 잊어버리기를 티끌같이 하니 그대가 비록 지금은 곡진하나 혹 그런 일을 당하면 어찌 홀로 그렇지 않겠으며 능히 의리를 지켜 믿음을 지키리까?, 김경미, 앞의 책, 50면. ; 어머니께서 만일 저를 버리시면 저는 쌓이고 쌓인 지극한 슬픔으로 살 길이 없나이다. 또 생각건대 아버님은 춘추가 늙지 않고 뒤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반드시 새로 장가를 드실 것이니 일이 이렇게 바뀌면 저는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설움과 답답한 신세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내려다 볼 곳이 없나이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이를 생각지 않으십니까. 김경미(2014), 앞의 책, 115쪽.

다. …… 언니가 밤마다 잠을 안자고 함께 빌었는데 뒤따라와 반드시 나를 앞세우고 방에 들어가고 남은 밤 동안은 내게 잠깐 쉬라고 하고 다음날 새벽에 올릴 약을 친히 달임에 때를 어기지 않았다. 모든 약을 한결같이 손수 달였는데 집에 돌아갈 즈음에는 심신이 어지러워 못할 지경이었다. …… 간간이 남편과 함께 죽을 뜻이 있음을 고하니 언니가 뺨을 대고 목을 안은 채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다. “이것이 참인가 꿈인가? 하늘이 차마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세상을 당하여 내 차마 어찌 동생더러 살라고 하리오? …… 하나 생목숨을 끊는 이 지극한 원통함과 혹독한 설움을 내 차마 어찌 견디고 살겠는가? 내가 죽어 이를 모르고자 하나 예로부터 동생을 따라 죽는 의 없고 살고자 하나 동생을 영영 여의면 내 심장이 철석이 아니니 어찌 능히 견디리오.”<sup>31)</sup>

작자의 언니는 셋째 며느리였기 때문에 혼인한 후에도 시집보다 친정에 더 자주 머물렀는데<sup>32)</sup> 그 덕분에 작자의 남편의 병이 위독해져 친정에서 피접했을 때 그 병 간호를 함께 하는 의리를 보인다. 위 ⑩을 보면 작자의 언니는 자신의 처소가 있었으나 작자와 함께 병 간호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불편한 협실로 옮겨와 함께 지냈고, 며칠 동안 작자가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함께 밤을 새고 빌었으며 오히려 ‘나를 앞세워’ 쉬게 하고 새벽까지 약을 달여 심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간호에 열중한다. 작자 남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작자가 스스로를 남편을 잃은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종사(從死), 즉 따라죽을 결심을 밝히자 언니는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하기도 한다.

〈자기록〉에 보이는 이같은 자매의 특별한 의리는 그들이 처한 생애 경험과 입장의 공유에 기인한다. 이들은 모친을 사별한 상실의 경험을 ‘유일

31) 김경미(2014), 앞의 책, 75~76쪽 ; 87쪽.

32) 다행히 언니가 셋째 며느리로 한가한지라 불과 수삼 일씩만 시택에 머물다 오니 천만 다행이 아니리오. 김경미(2014), 앞의 책, 41쪽.

하게 남은 그 어머니의 혈육’이라는 유대감으로 함께 했으며 또한 작자 남편의 간병을 지지하고 도우면서 더욱 끈끈하게 강화된 자매애를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유대감의 바탕에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의 처지’, 또는 ‘남편을 잃은 여성의 처지’에 대한 모종의 인식이 깔려있었음도 살펴 볼 수 있다.

〈자기록〉에서 이와 같은 생애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시어머니이다. 시모에 대해서는 언니의 경우처럼 한결같은 일치감과 유대감을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아들의 죽음이라는 생애 경험을 같이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자로서, 남은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 ⑰ 어머니가 때때로 슬퍼하고 우울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면 남편이 부드러운 낮빛과 기분좋은 소리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여 …… 내가 시집가기 전 해에 열 살 난 어린 딸의 죽음을 겪고 몹시 슬퍼하고 애도함이 지극하여 …… 아침저녁으로 슬피 울며 몹시 애통해하고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을 뵈지 못하니 문득 우리 어머니의 옛 일이 생각나서 슬프고 근심스러웠지만 능히 위로할 길이 없었다. …… 남편을 만금과 같이 중히 여기고 천금과 같이 사랑하심이 세상에 드문 바였다. 관례를 올린 어른이지만 무릎에 두고 재롱을 즐기시는 것을 강보의 아이같이 하며 자는 것, 먹는 것,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는 것을 어린 옥같이 하니 …… 농담을 주고받고 우리에게 잡기를 명하시면 크게 부끄럽고 어른 앞에서 무례한지라 몹시 부끄러워하며 낮을 불렀으나 어머니가 더욱 재미있게 여기며 여러 번 억지로 권하면 그대로 따라 웃게 해드렸다. …… (남편이) 슬하에서 갖가지 어리광을 부리고 매양 짓 먹는 시늉을 하면 시어머니도 우울한 마음으로 함께 장난하기를 저같이 하며 계속 응해주시다가 혹 물리치며 말씀하기를 “우리 며늘아가 분명 모자의 정을 보고 마음 상하겠구나.”하셨다. …… 우리 부부를 눈에 진기한 보물로 아셔서 잠시 곁을 떠나는 것도 몹시 힘들어 하셨다.<sup>33)</sup>

⑰은 시집 간 직후 작자가 시어머니에 대해 소개하며 인물에 대한 묘사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막 새로운 시집 가문에 입문한 작자의 눈에 비친 시모는 바로 전 해에 겪은 열 살 난 딸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함과 슬픔’에 젖어 있으며, 그로 인해 아들에게 더 과도한 애정을 쏟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작자는 이를 보고 자기 친정어머니 역시 자식을 여럿 잃었던 일을 떠올리며 일면 이해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잦은 감정의 굴곡을 드러내고 아들이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연달아 묘사하는 표현들을 통해 이러한 시모의 감정적 표현들이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시선 또한 미묘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장성한 아들에게 어리광을 부리게 한다거나 남편과 자신에게 다정한 부부간의 표현을 억지로 할 것을 명하게 한다거나, 며느리인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며느리가 우리 모자의 정을 보면 마음 상하겠다’는 발언을 전하는 대목에서는 이 두 인물이 서로에게 일정한 심리적 거리감, 또는 이질감이나 대척적 구도의 느낌을 갖고 있었음도 읽어볼 수 있다. 작자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신중하고 점잖으며 군자 같은 인물’로 묘사했던 것을 떠올리면 시어머니의 다소 과한 애정 표현과 아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 성향은, 작자에게 생애 모델로서 이상화된 존재인 친정 모친의 형상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시모에 대한 내밀한 부정적인 평가의 시선도 짐작하게 된다.<sup>34)</sup>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졌던 고부 간의 관계는 작자의 남편을 간병하는 과정과 남편의 죽음 후 자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 및 의존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33) 김경미(2014), 앞의 책, 45~47쪽.

34) <자기록>의 작자가 시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감정의 복합성과 중층성’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는 시모와의 관계를 ‘이질감-공감대-유대감-한계’의 순서로 분석하기도 했다. 홍인숙(2016), 앞의 논문.

⑱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마음 쓰는 중에 원기를 보충하지 못함을 더욱 조급해하셨으나 …… 점점 쇠약해가는 것이 민망하던 중 시어머니가 약간 빌린 돈으로 양즙을 해주셨다. 나 또한 민망하였으나 빈손이라 차마 한 감을 팔아서 언니에게 보내 자웅고를 해보내라고 했더니 양과 해삼을 넣어 쌍계고를 여러 차례 해와서 올렸는데 …… 시어머니가 다시 양즙류를 하셨으나 …… 남편이 이미 어른들이 마땅치 않아하심을 알았으니 어찌 그 뒤로 다시 들겠는가. ……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여기시고 정월 초사흘 날 내가 친정에 갈 때 이르시기를, “아이 병이 근위 가볍지 않고 심히 치렸으니 마땅히 원기를 보하고 의약으로 빨리 치료해야 할 것인데 저렇게 버려두니 몹시 민망하다. 이런 말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제 병에 유익할 일이니 내 인사를 어찌 돌아보겠느냐. 염치불구하고 사돈께 유미원 두어 제를 지어주시라 하여라.” 하셨다.<sup>35)</sup>

⑲ 시어머니가 억지로 미음 종지를 드셨는데 일이 진정된 후 세상을 끝내려고 유서까지 쓰고 틈을 기다렸으나 모두 능히 알 리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씀 끝에 불길한 말씀을 자주 하시기에 내가 하루는 울면서 아뢰기를, “…… 어머니께서 매양 이렇게 불길한 말씀을 하시니 저를 버리시면 살 길이 없나이다. 또 생각건대 아버님은 춘추가 늙지 않고 뒤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반드시 새로 장가를 드실 것이니 …… 어찌 이를 생각지 않으십니까?” …… “오늘부터 결단을 버리고 내 한 목숨을 너에게 붙이고 네 몸을 보호하여 아깝고 불쌍 참절한 마음의 만의 하나라도 풀 것이니 다시 염려하지 말아라.” 이후 밤낮으로 그치지 않던 곡을 잠깐 억제하고 내 침소에 함께 지내셨다. …… 시어머니가 연일 육즙을 가져와 울면서 간절히 권하고 …… 시어머니가 과일을 가져와 간절히 말씀하시기를 …… “바라건대 내 생전까지만 먹어라.” …… 내 얽힌 머리칼과 어지러이 자란 눈썹을 보고 스스럼없이 머리를 빗겨주고 눈썹의 어지러운 털을 뽑아주려 하셨다. …… 내 잠자리와 의복을 어둡지 않은 열은 빛깔로 하며 한가지 일 한 마디 말도 보호치 않음이 없으니 고부의 정과 모녀의 가까움을 겸하여 곡진

35) 김경미(2014), 앞의 책, 57~58쪽, 62~64쪽.

한 정성과 자애가 한몸에 넘치셨다.<sup>36)</sup>

작자는 기침과 오한, 종기 등의 작은 증세로 시작한 남편의 병을 점점 악화시킨 원인이 시부와 시조부의 지나친 절약, 의원에 대한 지나친 불신 때문임을 작품 전반에 걸쳐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다.<sup>37)</sup> 작자와 시어머니는 그러한 시어른들의 비합리적인 조치들을 드러내놓고 반박하거나 여기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의약을 구하고 보원을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된다. ⑬을 보면 시어머니는 시어른들과는 달리 ‘밤낮으로 마음을 쓰고 조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서술되는데 이는 작자의 심정과 같은 것이었다. 이들은 시어른들 몰래 각각 돈을 빌리고 치맛감을 팔아가며 마련한 돈으로 ‘양즙’, ‘자옹고’, ‘쌍계고’를 지어 병자에게 먹게 했는데<sup>38)</sup> 특히 약을 구하고 싶었던 시모는 작자의 친정 부친인 ‘사돈에게 부탁해 약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남매, 친지 간에도 엄격하게 내외 구분이 적용되었던 조선 사회에서 사부인이 상대 남성 사돈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것, 그것도 시어른들 모르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모가 작자를 ‘치병(治病)’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유일한 인물이자, 시어른들의 불합리한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협력자로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부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결

36) 김경미(2014), 앞의 책, 115~116쪽, 119쪽, 120~121쪽.

37) 작자는 주체가 ‘시어른들’이라고 명백히 지시하진 않으면서도 ‘검박과 절약’을 강조하는 가풍 때문에 방에 제대로 불을 때지 못하게 해 남편이 추위에 떨었던 것, 시어른들이 의원들을 불신해 약을 못 쓰게 한 것, 친정에서 보낸 보약이나 음식도 못 먹게 한 것, 친정에 치료 받으러 와있던 허약한 남편을 시조부가 억지로 견게 해 집에 데려갔던 것 등을 낱낱이 서술한다. 홍인숙(2016), 앞의 논문, 91쪽.

38) 나중에 이를 안 시조부는 ‘양즙은 부질없으니 그만두라’고 하며, 처가에서 해준 쌍계고 얘기를 듣고는 ‘처가 것을 좋아한다’면서 꾸짖는다. 김경미(2014), 앞의 책, 63쪽.

국 죽고 말았는데 ⑨는 그 후 이들이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로 다른 점이 많았던 고부는 남편 사후에 더 긴밀하게 서로를 보호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계기는 시모의 자결을 작자가 만류했던 ‘이유’ 때문이다. 시모의 유서 작성과 자결 결심을 유일하게 알아챈 작자는 울면서 ‘어머니마저 저를 버리면 살 수 없다’고 호소하고 나아가 ‘아버님 춘추 많지 않으니 반드시 새 장가를 드실 것’임을 강조한다. 시어머니는 바로 이 말에 반응을 보이며 자결의 결심을 철회한다.

작자 자신에게 큰 상처였던 친정 부친의 ‘신취’를 떠올리게 하는 이 발언이 시모에게도 역시 생사의 결심을 반복하게 하고 ‘번연개요’ 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들이 ‘유교 질서에서 여성으로서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교적 남성 중심 질서 속에서 아내의 죽음은 속현(續絃),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일에 불과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은 ‘고부의 정’과 ‘모녀의 가까움’을 겸하며 서로를 보살피는데, 특히 시모는 며느리에게 ‘육즙과 과일’, ‘머리와 눈썹 정돈과 밝은 옷’을 권하며 세세한 일상까지 돌보는 자애를 보인다. 이러한 이들 관계의 핵심은 유교 질서가 상상한 고부간 감정 기획, 즉 ‘서로를 견제하고 질시하며 충돌하는 것’을 벗어난 특별한 유대감과 연대의식, 모성적 보살핌이다.

〈자기록〉의 작자가 시모와 함께 겪은 ‘남편/아들의 죽음과 상실’이라는 생애 사건의 공통 경험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상대방의 존재를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되어주었다. 이들은 아들/남편의 병 간호 과정에서 고부간이라는 ‘다른 입장’을 넘어서 병자를 살리기 위해 시어른들의 눈을 피해 가장 긴밀하게 협조했던 협력 관계를 맺었다. 또 ‘언제든 대체 가능한 아내로서의 자리’라는 유교 가부장제 하의 여성으로서의 같은 취약한 입장을 주목하면서 서로에게 예기치 못했던 연대감과 유대감을 발견하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줄 존재의 근거가 되었음도 살펴볼 수 있다.

#### 4. 결론—여성적 경험과 입장의 공유, 그 연대와 기록의 힘

〈자기록〉의 주요한 핵심 내용은 ‘남편의 죽음과 그를 따라죽어야 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 서사’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삶의 기록’이라는 텍스트 성격상 작자 주변의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성, 그들에 대한 감정과 심리적 상황 등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 중 특히 작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변의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성’에 주목해보았다. 이러한 여성 간 관계성은 한 사회가 운영되는 사회적 거대 담론의 표면에 드러나거나 중대한 의미가 부여되진 않지만, 실질적인 여성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큰 비중과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은 ‘어머니의 존재’에 깊이 영향 받는 딸의 생애를 보여준다.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비통함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과 대인 관계가 비관적으로 바뀌는 작자의 모습은 어머니의 존재가 이 인물의 삶에 행사한 막강한 생애 규정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여성의 삶에서 ‘여성으로서의 입장과 경험’이 공감과 유대를 이끌어내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도 잘 보여주고 있다. 언니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의 자리가 쉽게 대체’된 상황을 유일하게 함께 겪으며 형성한 배타적 유대감의 공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결하고 나면 손쉽게 대체될 아내의 자리’에 대한 공감의 형성은 그러한 면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기록〉은 조선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입장과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러한 관계에서 모성적 돌봄과 자매애적 유대가 실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인 것이다.

‘자기 삶의 기록’이라는 뜻의 〈자기록〉에서 작자인 풍양 조씨는 어머니의 생애와 자기 삶의 연결을 글로 남김으로써 모친의 삶의 기록자가 되었다. 또한 조씨의 언니는 이러한 동생의 기록을 필사하여 어머니와 동생의

삶의 기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sup>39)</sup> 여성적 경험과 입장에 기반한 여성 간 유대, 그 속에서 관철되는 돌봄과 자매애, 그리고 그것의 기억과 기록화는 가부장제가 상상한 여성들의 관계성에 대한 그림 바깥의 것이었다. 〈자기록〉이 갖는 여성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여성 관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9) 내 아우에게 차마 어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시리오. 사람됨과 타고남, 인물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궁박한 태 있으면 …… 이토록 하늘을 부르짖으며 원통함을 호소함이 있으랴. 이 애닦고 원통하고 원통함은 죽기 전 잊힐 때가 없을 듯하나 자주 모여 피차 얼굴 그리는 탄식이나 없으면 나으련마는 떠남은 많고 머뭇은 잠깐이니 그만 일도 뜻 같지 못하니 무슨 일로 위로할 것이 있을꼬 …… 이 책을 보고 제문을 베끼니 마음이 더욱 감회에 젖어 능히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하리로다. 김경미(2014), 앞의 책, 142쪽.

참고문헌

- 풍양 조씨,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 김정미 역, 나의시간, 2014. 1~280쪽.  
『소학』, 『내편(內篇)』, 『입교(立教)』 1장, 이기석 역해, 홍신문화사, 1982. 1~442쪽.  
이경하 편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10. 1~889쪽.
- 강혜중, 『살인사건을 둘러싼 조선의 감성 정치』, 최기숙, 소영현 외, 『감성사회- 감성은 어떻게 문화동력이 되었나』, 글항아리, 2014, 109~134쪽.
- 김경미, 『외씨 버선발로 금강산을 밟은 남장 처녀 김금원』, 『조선의 여성들, 부 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288~313쪽.
-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 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240~261쪽.
- 김경미, 『가(家)와 여성』, 3장 『유교적 여성 주체와 균열』, 여이연, 2012, 1~319쪽.
-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2014, 121~146쪽.
- 김경미, 『〈호동서락기〉 이본 『금원집(錦園集)』 연구- 김금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고전연구』 4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2. 5~35쪽.
-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67~296쪽.
-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07~318쪽.
- 김정경,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83~114쪽.
-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 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39~467쪽.
- 박경, 『『자기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229~261쪽.
- 박영민, 『19세기 여성 詩會와 문학 공간- 운초 그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6, 민족문화연구원, 2007, 6. 37~67쪽.

- 박옥주, 『풍양 조씨 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165~188쪽.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1~428쪽.
-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 『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2001, 239~271쪽.
-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애 역, 민음사, 2009, 1~502쪽.
- 성민경, 『여훈서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74쪽.
-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1~238쪽.
-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 2015, 5~35쪽.
- 조수미,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269~293쪽.
-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론들』, 강경덕, 김세서리아 역, 그린비, 2019, 1~303쪽.
- 홍인숙, 『『즈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241~272쪽.
-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67~95쪽.
- 홍인숙, 『남원 윤씨 열행 기록 『애종용(哀從容)』 연구 - 여성 중심 관계성과 유서 언어의 번역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257~281쪽.
-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 김만중의 <先妣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Women-Centered Relationships Shown in <Jagirok>\*

Hong, In-sook

<Jagirok> is a material that shows the deep “relationships among women,” which was uncommon in the men-centered Joseon society. Thi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isters, and mothers-in-laws and daughters-in-laws, as shown in <Jagirok>.

The author’s mother was described as an “ideal person” in every aspect, including her appearance, character, and intellectual ability. The author’s mother was not only a “lifetime model” to the author, but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er view of life. Within a few months of losing her mother, when she was only ten years old, the author had to accept a stepmother. The shock and sorrow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author, causing her to view of life negatively.

Meanwhile, there was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in her relationships with her elder sister and mother-in-law, as they shared “lifetime experiences.” The author and her elder sister shared a sense of exclusive solidarity from sharing grief and condolences after losing their mother. Later, the elder sister helped to care for her brother-in-law, which provided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build a stronger sisterhood. In the author’s relationship with her mother-in-law, they felt a little bit of distance from each other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marriage. However, they gradually formed a sense of solidarity by jointly and implicitly responding to their irrational parents-in-law. After the death of her son and husband, the author actively stopped her mother-in-law’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Hongik University new faculty research support fund.

suicide attempt and built a new relationship by sharing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men-centered society.

In the men-centered and patriarchal Joseon society, 〈Jagirok〉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omen’s position and experiences,” maternal care, and sisterhood relationships. Moreover, it shows that a woman, through writing, could record and transmit memories about other women. This was something beyond the imagination and planning of patriarchy regarding relationships among women. 〈Jagirok’s〉 value as women’s literature may lie in this.

**Key Words** <Jagirok>, Madame of the family of Pungyang Cho, women’s life, relationships between women, maternal care, sisterhood, women’s writing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